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학의 역사와 문학인식

최재용 (명지대)

1. 서론

지난 세기 형성되고 위세를 떨쳤던 '문학'이라는 개념, 혹은 그것이 지칭하는 외연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연구자나 비평가들은 더 이상 대중문학을 폄하함으로써 순문학/순수문학/엄숙문학/본격문학 등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옹호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아직 이런 위계질서를 옹호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버린 것 같다.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자본주의적 대중'[1] 및 그 논리에 의해 추동되는 대중문학이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미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중'이라는 어휘에는 이제 '인민대중'이나 '문예대중화 논쟁'에서 가졌던 강렬한 정치적, 도덕적 함의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그리고 '문화산업'의 시대에 문학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만족하는가? 시장과 자본의 승리는 최종적인가? 눈을 돌려 중국 현대문학의 백 년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 가능성이 현재의 양태보다 무조건 더 옳거나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그 한계와 폐단을 극복할 단초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본고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중국 현대문학 내의 중요한 대중문학 작가와 작품을 간단하게나마 돌이켜보고자 한다.

2. 대중문학, 징검다리식 읽기

중국 현대문학에서 대중문학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는 징검다리처럼 중요한 작가를 성큼성큼 건너뛰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편폭과 필자 역량의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작품과 작가들을 두고 하나의 단일하고 완성된 역사의 흐름을 그려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중국현대 대중문학의 징검다리식 재구성은, 가능한 수많은 징검다리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중국 대중문학(혹은 문화)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삼을 것은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 문제이다. 최근에는 이 양자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의문시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1) 안인환은 인민대중과 자본주의적 대중을 엄격히 구분하며, 나아가 혁명문학과 자본주의적 대중문학 역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구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이런 구분 자체를 넘어서는 더 큰 '대중' 문학을 구상하려 한다. 안인환, 『중국대중문화, 그 부침의 역사』, 도서출판 문사철, 2012년, 202-203쪽 참조.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문학의 생산자/비평가들이 그들 스스로와 대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 대중문학의 핵심적 주제로 기능해 왔다. 아래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작가 몇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오수리赵树理

5.4 신문학은 그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지식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들 지식인은 대체로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문학은 바로 이런 대중 계몽의 무기였다. 하지만 신문학 지식인들의 '문학적' 성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오히려 이런 작품들은 당시의 '대중'들에게서 멀어졌다. 자오수리는 이런 아이러니를 타파하려고 했던 작가다. 당시 중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문맹에 가까운 농민에게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문학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오수리는 "루쉰선생이 작품대상으로 삼은 독자는 매우 분명했다. 즉 지식분자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쓴 것이었다"[2]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소수의 엘리트적 지식인과 다수의 계몽 대상으로서의 대중 사이의 위계적 이분법을 실천적으로 넘어섰다는 점은 우리의 논의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는 농민과 농촌의 실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였으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난해하고 자기중심적인 지식인의 언어를 내려놓고 새로운 '대중적'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이해하였다. 그가 '문단文壇문학자'가 아니라 '노점文攤의 문학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3] 자오수리가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 취한 방식은 기존의 '순문학' 노선과 맞서는 것이었다. 그는 '소설'의 핵심적 부분이라 여겨지던 것들을 과감히 삭제했다. 예를 들자면 인물의 내면과 심리활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 같은 것 말이다. 허구이메이贺桂梅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소설은 인물의 내면 활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그저 사건의 발전 가운데에서 인물의 기능과 인물의 언어, 그리고 외재적인 행동 등으로 인물을 표현했다."[4] 샤오얼헤이小二黑나 샤오친小芹 등의 주인공 형상은 오히려 지극히 몰개성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저 추상적인 선남선녀로 그려질 뿐이다. '순문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이런 인물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테지만, 보다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순문학'적 요구야말로 일시적인 것이며 대다수 '대중'의 독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오수리가 취한 대중 중심적 접근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자오수리의 창작은 50-60년대에 걸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결국 지식인이자 농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민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학을 꿈꾸었던 자오수리의 대중문학은, 그 신선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계승/발전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

2) 가마야 오사무 지음, 조성환 옮김, 『자오수리 평전』, 동과서, 1999년, 66쪽.
3) 위의 책, 53쪽.
4) 唐小兵 엮음, 贺桂梅 지음, 「赵树理文学的现代性问题」, 『再解读—大众文艺与意识形态』,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97쪽. "他的小说很少涉及人物的内心活动，仅仅从人物在事件发展中的功能 `人物的语言和外在行为来表现人物 °"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2) 왕숴王朔

중국 대중문학의 역사에서 필자가 두 번째로 거론하고 싶은 작가는 바로 왕숴다. 사회주의 혁명의 광풍이 끝나고 개혁개방의 물결이 중국을 뒤덮었을 때, 문학계의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작가가 바로 그다. 70년대 후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80-90년대 중국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대단히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대중문학관은 대단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그 자체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진융金庸을 공격한 글에서 그는 진융을 "사대천왕, 청룽成龙의 영화, 충야오琼瑶의 드라마"와 함께 싸잡아서 "네 가지 속물스러운 것四俗"이라 비판하였다. 그가 보기에 "중국의 부르주아 계급이 생산할 수 있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모조리 썩어 문드러진 것"이기 때문이다.[5]

왕숴를 대중문학 작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발언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왕숴의 초기 작품들은 대단히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그는 "중국의 부르주아 계급"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의 생산자였다. 하지만 중기 이후의 소설 작품, 특히 「동물흉맹动物凶猛」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작품이며, "속물스러운 것"에 대한 조롱과 비틀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왕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식인'과 '도덕'에 대해 가졌던 반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나타났던 대중적인 요소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 혁명 시기 문학을 지배했던 이념형과 도덕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진융'을 필두로 한 '부르주아 계급의 (대중)문화'가 점차 사회 전반에 걸쳐 범람함에 따라 왕숴는 이런 통속적 노선과 스스로를 구분할 필요를 느낀다. 그가 보기에 지식인, 문학가, 부르주아, 통속적 대중은 모두 위선과 도덕주의에 함몰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왕숴는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지식인과 순문학 작품에 대한 혐오를 여지없이 드러내었던 것이다.[6]

요컨대 왕숴는 북경 문화의 계승자이자 군인 출신으로서 나름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7]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적이고 도덕적인 이념형으로서의 대중도, 위선에 가득 찬(혹은 가득 찼다고 그가 생각했던) 기존의 지식인 엘리트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래서 왕숴는 기존의 가치와 도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롱과 희화화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왕숴의 문학 활동 중에는 대중문학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는 당시 급속도로 세력을 불려 나가고 있었던 '자본주의적 대중' 속에 함몰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대중적 요소를 비틀고 비웃음으로써, 중국 대중문학의 새 역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대중문학을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3) 한한韩寒

세 번째 작가는 '80허우'를 대표하는 작가 한한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작가는 모두

5) 葛红兵 `朱立冬 엮음, 王朔 지음, 「我看金庸」, 『王朔研究资料』, 天津人民出版社, 2005년, 80쪽.
6) 최재용, 「왕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7) 박민호, 「왕숴(王朔) 창작에 대한 `다위안(大院)`의 영향과 왕숴의 대중문화관」, 『중국문학연구』 66호, 2017년, 109-110쪽 참조.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마오저둥과 문혁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혁명 문예관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위치한다. 하지만 한한은 21세기, 전통적인 지식인 엘리트라는 계층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등장하여 지식을 둘러싼 권력 담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가 블로그에 올렸던 아래의 글은 그의 문학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작가고, 모든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중략)...당신이 문학이라고 하면 곧 문학이 되고, 당신이 문학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글쓰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이란 어떠한 사람의 인정이나 지도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8]

위 글은 저명 문학 평론가인 바이예白燁를 겨냥한 것인데, 당시 한한과 바이예의 온라인 논쟁은 나중에 수많은 문학계 인사와 네티즌이 참여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한백지쟁'이라 명명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9] 이 글에서 한한은 문학계에서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려 시도한다.

왕숴에게 지식인은 비록 위선과 도덕의식에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조롱을 통해 뒤흔들어 놓아야 할 권위적인 주류 세력이었다. 하지만 한한에게 이들 지식인은 고작해야 귀찮은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특권의식에 찌든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대중 속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자오수리조차도 대중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는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단이었지 계몽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한에게 있어 이미 대중은 스스로 문학을 생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작가"라는 선언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대약진시기 신민가 운동을 연상시키기까지 하는[10] 이 선언은, 5.4 시기 이후 20세기 대중문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인-대중의 관계설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제 지식인이냐 대중이냐 하는 이분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야말로 누구나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마련되었다.

(4) 인터넷 소설

90년대말 이후, 중국의 인터넷 문학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성공적인 유료화와 상업화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중국 대중문학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 인터넷 문학을 통해 지식인-대중 문제는 (한한이 미리 예고했던 방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21세기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대중적, 상업적 인터넷 장편소설은 과거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 대중을 대할 때 흔히 보여 주었던 계몽주의적 태도와 전혀

---

8) 韩寒,「有些人, 话糙理不糙: 有些人, 话不糙人糙」. "文章的意思其实就是, 别文坛不文坛, 每个码字的都是作家, 每个作家都是码字的。尤其是我看了看很多人的博客, 都是好文笔, 都是文学。您别教导人家应该怎么写, 不是你说了是文学, 就是文学, 你说不是文学, 就是作文。文学不需要任何人的肯定和指引。"

9) 자세한 경과는 최재용, 「한한이 촉발한 문학논쟁과 그 문학사적 의미」, 『중국현대문학』 61호, 2012년, 144-149쪽을 참조.

10) 신민가 운동은 마오저둥의 반 엘리트주의와 대중(인민) 추수주의가 결합한 사태였다. 지식인이 쓴 난해한 시는 철저히 배격받고, 노동자 농민이 직접 쓴 시가 신시의 전형으로 추앙받았다. 이 구도는 한한의 언설에서 보이는 엘리트-대중 구도와 매우 흡사하다. 김자은, 「大躍進時期 新民歌의 운동방식 고찰」, 『중국학』 제 28집, 2007년 참조.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관한 문학현상이다. 한한에 이르러 완전한 자아긍정을 획득한 대중은 이제 지식인으로부터 독립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서 예로 들고 싶은 것은 『환생한 재벌 2세重生之二代富商』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이다.[11] 이 소설의 주인공 우용吴庸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짓누른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여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다.[12] 우용에게는 폭력이 나쁘다는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 피해자의 '배경'이 자신에 비해서 어떠하느냐 하는 것밖에 없다. 우용의 악행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컨닝을 하기 위해 교사를 모함하고 가벼운 독을 먹이기도 하며, 입시부정이나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악행의 스케일은 점점 커진다. 결말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도를 침략한다. 전쟁조차도 그에게는 자신의 세력 확대와 땅따먹기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왕숴나 한한에게 있어 기존의 지식인이나 엘리트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우거나 추방해 버려야 할 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인터넷 소설에서 이제 더 이상 지식인 엘리트와의 '대결구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덕이나 계몽 등 지식인의 역할로 여겨져 오던 것이 너무나 미약해져서 이제 더는 진지하게 대결해야 할 대상으로도 여겨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대중의 욕망 그 자체다.

우리 논의의 맥락에서 보자면, 최근 중국 인터넷 장편소설의 유행은 문학의 완전한 '대중화'를 뜻한다. 인터넷 장편소설은 자체적인 생산, 유통은 물론이고 평론과 추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문학 연구자나 평론가의 의견보다는 대중의 직접적 의사표현인 추천수와 조회수가 더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자오수리는 지식인의 우월한 지위를 버리고 농민 대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려 했다. 왕숴는 지식인을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그들과 정면대결을 벌였고, 한한 역시 지식인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새로운 대중적 지식인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마침내 인터넷 문학의 유행기에, 이제 지식인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채 문학의 변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서의 활발한 문학 활동은 완전한 도덕적 공백 상태에서 대중의 욕망을 날것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3. 흥미로운 혼종 : 『인민의 이름』

『인민의 이름』은 유명한 정치소설(官场小说)가인 저우메이선周梅森의 장편소설이며, 올해(2017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내용은 H성(드라마에서는 汉东省)의 오래 된 부정부패 문제와 맞서 싸우는 허우량핑侯亮平이라는 정의로운 검찰 반부패국 국장(人民检察院反贪局局长)의 이야기이다.

---

11) 小小羽가 2009-2010년에 걸쳐 起点에 연재한 장편소설로, 2017년 7월 현재 총 조회수가 3503710회, 추천수는 105917로 상당한 인기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글자수가 2401602자로 분량도 제법 길다.

12) 제 59장 참조. http://read.qidian.com/BookReader/1pYtevi7OyE1,3i0EGRFpEWsex0RJOkJclQ2.aspx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소설, 혹은 공산당 간부가 등장하는 소설은 반부패라는 주제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선율문학과 비슷한 논조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인민의 이름』은 '파리와 호랑이를 사냥' 하려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였고[13] 내용적으로도 공산당의 최종적 권위를 승인하는 쪽에 가깝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주선율문학(콘텐츠)과는 달리 이 소설/드라마가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11.53%에 달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한 편이 되었으며 인터넷에서 210억 회 이상 방영되었다.[14] 소설 역시 드라마의 흥행과 더불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15] 周梅森은 이전에도 『절대권력绝对权力』 이나 『최고의 이익至高利益』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기 작가였지만, 『인민의 이름』의 흥행은 확실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탈 사회주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2017년, 공산당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장르소설/드라마가 이토록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또 무엇인가?

1) 주선율의 대중화 전략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중국의 문학이 갖고 있던 기존의 도덕적, 학술적 권위는 왕숴와 한한을 거치면서 크게 파괴되었다. 특히 인터넷 문학의 시대에 이른 지금, 대중문학에서 어떤 사회주의적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최근인터넷에 연재되는 정치소설들은 이미 도덕과는 무관한 노골적인 개인 욕망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16] 하지만 『인민의 이름』이 보여 주는 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주선율 문예 쪽에 가깝다. 너무 노골적으로 강조해서 농담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긍정적 등장인물(이쉐시易学习, 사루이진, 허우량핑)[17]의 발언은 정의감에 가득 차 있으며 한점의 사리사욕도 없다. 이런 정직한 도덕주의적 시도는 '주선율' 이라는 이름으로 건국 이래 줄곧 계속되어 왔으며 『인민의 이름』은 분명 그 계보에 속한다. 여기서 왜 『인민의 이름』이 이토록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건국대업〉이나 〈건당위업〉, 〈공자〉 등 대중문화 및 문화산업 영역에서 중국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내놓은 주선율 콘텐츠들은 대부분 조롱과 악평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인민의 이름』은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주선율 이데올로기가 대중에게 완전히 승인받았기 때문일까? 이런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소설/드라마의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많은 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자.

---

13) 실제로 이 작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최고인민검찰원과 선전부가 깊이 개입했다. 고윤실, 「[ACCI의 중국 대중문화 읽기] 주선율 장르의 진화…중국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 참조.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ihao9292&folder=27&list_id=15130819

14) 《人民的名义》剧情已进入高潮 24日峰值收视破7 2017年04月25日 10:58 新浪娱乐 http://ent.sina.com.cn/v/m/2017-04-25/doc-ifyepsec0905227.shtml

1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504000235

16) 吴越, 「官场小说二十年」, 『齐鲁周刊』, 2017년 14기, A21쪽

17) 세 사람의 이름 중 밑줄 친 글자들을 모으면 习金(近)平이 된다.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 리다캉 이모티콘(표정표) 검색 결과(baidu.com, 2017년 9월 19일 검색, 일부 결과)

흔히 이 드라마/소설의 흥행 요인으로 조연들의 활약을 꼽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리다캉李达康(우깡吴刚 분)이라는 인물이다. 실제 작품 속에서는 일 중독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리주의적 당 간부로 등장하며, 인간적인 매력이라고는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위 그림이 잘 보여 주다시피 대중은 그의 표정과 발언을 작품의 맥락과 완전히 분리시켜 소비하고 있는데, 마치 아이돌 스타를 대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준다. 귀여운 핑크색 토끼 귀와 합성된 사진(그림 1, 오른쪽 맨 아래)은, 주선율문학(드라마)가 그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이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리다캉의 인기는 주선율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성공과 실패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우선 5.4 이후에서부터 건국을 전후한 혁명적 대중소설은 대중을 계몽하고 혁명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는 정치적인 이상적 세계, 즉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홍보하고 상징적으로 완성하는 실천이었으며, 「소이흑의 결혼小二黑结婚」과 같은 도덕적인 세계가 그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반면 탈 혁명, 탈 사회주의 시기의 대중문학은 점차 정치적 도덕주의에서 벗어나 대중의 세속적 욕망을 상품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인민의 이름』은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낸 것처럼 보인다. 소설은 공산당이 "깨어난" 도덕적 세계를 되살리려는 계몽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과 드라마는 부패라는 사회 현상을 엽기적인 뉴스로, 일종의 포르노로 소비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민폐 저택'[18]에 대한 묘사, 가오샤오친高小琴의 산쉐이 그룹山水集团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생활에 대한 묘사 등이다. 소설과 드라마는 그런 소비 과정에 권선징악이라는 포장지를 두름으로써 부패관료들의 화려한 생활과 막대한

18) 1화에서는 인민폐로 벽과 침대를 만든 부패 관료가 등장하는데,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 면죄부를 부여한다. 즉 『인민의 이름』은 한편으로 사회주의의 도덕적 세계를 회복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도덕이 무너져 내린 세계를 너무나 솔직하게 묘사해 낼 수밖에 없으며, 그런 묘사 과정을 통해 부패 그 자체를 상품화한다. 그런데, 정말 이 소설이 주선율 콘텐츠의 두 가지 목적, 즉 이데올로기적 교화와 상품으로서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일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위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소설과 드라마는 상품으로서 성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데올로기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과거 혁명소설이나 전형적인 주선율 콘텐츠와는 다르게, 이 소설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결정적이거나 최종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치퉁웨이祁同伟와 가오위량高育良 등 표면에 드러난 악역이 제거되었지만 당 내부의 모순, 당과 인민의 모순, 사회의 모순 등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 언뜻 보기에 『인민의 이름』은 공산당의 입장에서 국민(대중)을 계도하려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오수리와 흡사한 것 같다.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비근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오수리에 비해 이 소설은 훨씬 복잡하고, 인물은 입체적이며, 결론은 암시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나마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결론이 선명한 권선징악에 가깝지만, 소설에서는 따펑창大风厂이라는 주요 모순(국유기업 처리)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또 드라마에서 텐궈푸田国富가 사루이진沙瑞金이라는 일인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자처했던 것과는 달리 소설에서는 사루이진을 감시하고 감독해 줄 존재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이 깨어났다"[19]는 선언이 등장하지만, 마지막 두 문단은 결국 각각 말줄임표와 물음표로 마무리되고 있을 뿐 공산당과 인민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은 느껴지지 않는다.

둘째, 설령 이런 망설임과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긍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의 대중적 향유 과정은 이데올로기와 그리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리다캉이라는 권위적 공산당 간부는 '귀염둥이'로서 소비된다. 대중은 언제나 문화콘텐츠 속의 이데올로기를 비틀고, 멋대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무시해 버릴 가능성을 보여 주었는데, 『인민의 이름』에서 이런 대중문화의 밀렵(poaching) 행위는 대단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광범위한 2차 3차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다. 리다캉이나 허우량핑 등을 주인공으로 한 팬픽, 만화, 이모티콘 등이 쏟아졌다.

4. 결론

다시 대중과 지식인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어떤 면에서 『인민의 이름』은 지식인과 대중 모두를 끌어안으려는 시도이다. 소설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세우려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문화상품으로서 상업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을 사용하는 행위도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도덕적 세계를 재건하고 독자 대중에게 안심을 주려 시도하지만, 이제 그 재건은 위태롭기만 하며 심지어는 그 자체로 해체의

19) 周梅森, 『人民的名义』,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6년, 384쪽.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품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문제는 창작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이 소설의 겉으로 드러난 창작 주체는 저우메이선이라는 작가, 즉 지식인이다. 하지만 실제 창작 주체도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소설의 창작 과정에는 당과 정부 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심지어 저우메이선의 창작을 '허가'해 주었다. 그렇다면 주선율 콘텐츠의 창작 주체는 사실상 지식인 개인이 아니며, 지식인과 국가 권력의 공동 창작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 문학사에서 국가와 당은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선율 문학을 대중적 문화상품과 융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인민의 이름』은 중국 대중문학이 처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고삐 풀린 대중을 (재)영토화하려는 공산당의 시도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으로는 무수한 탈주의 선을 낳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가마야 오사무 지음, 조성환 옮김, 『자오수리 평전』, 동과서, 1999년
안인환, 『중국대중문화, 그 부침의 역사』, 도서출판 문사철, 2012년

국내 논문
김자은, 「大躍進時期 新民歌의 운동방식 고찰」, 『중국학』 제 28집, 2007년
박민호, 「왕숴(王朔) 창작에 대한 `다위안(大院)`의 영향과 왕숴의 대중문화관」, 『중국문학연구』 66호, 2017년
최재용, 「왕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최재용, 「한한이 촉발한 문학논쟁과 그 문학사적 의미」, 『중국현대문학』 61호, 2012년

해외 단행본
葛红兵 `朱立冬 엮음, 『王朔研究资料』, 天津人民出版社, 2005년
唐小兵 엮음, 『再解读—大众文艺与意识形态』,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해외 논문
吴越, 「官场小说二十年」, 『齐鲁周刊』, 2017년 14기

작품
周梅森, 『人民的名义』,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6년

www.krm.or.kr